

간화선 대종회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 지상중계 ②

3월 12일  
주제 - 21세기 대안, 왜 선인가?

# 부와 지식 쌓은 만큼 당신은 행복한가?

## 說 禪 혜국 스님

(석종사 금봉선원장)

21세기의 대안이 왜 선(禪)이어야 하는가?  
먼저 21세기를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21세기를 받아들일 때는 정말 꿈의 21세기가 온다고, 21세기는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가져 주어질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맞이한 지 5년째, 이라크 전쟁과 남아시아 지진해일로 못 생명들이 죽었고, 아프리카나 콩고, 네팔, 루마니아 등지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간에 또는 부부간, 또는 모든 가정의 틀이 남아시아 지진해일과 같은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다 돈도 더 많고지고 엄청난 지식도 쌓았는데 진정한 행복함이 돌아옵니다. 내가 본래 성불인 부처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와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도 부처와 같이 잠을 자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나에도 당당한 부처로서 사는 삶이요, 행복한 평화로움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오히려 중노년 속에서도 저녁에는 가족들이 모여 오순도순 저녁을 먹으면서 행복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아마 "정말 나는 행복하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살 만하다"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일류 대학을 갈 것인가 못 갖 것인가, 좋은 직장을 갈 것인가 못 갖 것인가, 돈 때문에 때로는 직업 때문에 날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우리나라 인사법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라고 인사를 했어요. 하도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살 때라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는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사법을 들어보면, "부자되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와 남이 경쟁하는 회사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가지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계관이 잘못됐고, 잘못된 세계관을 바로잡는 대안인 선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주관이고 보이는 대상은 객관이다 하여 나와 남을 항상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나와 남을 적이나 동지나로 나누어 생각하고 있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자는 말입니다.

부처님법은 중도, 마하반야바라밀, 현상 현유아독존입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면 내가 소중하며, 이 뜻이 잘되어야 공장이 돌아가고 농장에서 는 곡식이 지어져서 이웃이 잘되는 것이 곧 내가 잘되는 것이라는 이러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서양철학에서는 사유하는 이성 과 그 사유하는 대상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대상, 즉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이원론을 원칙으로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21세기 위기가 오지 않았을 텐데, 사유하는 정신은 우월하고 그 대상인 물질은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하인주의 지배의식, 개발의식이 이원론에서는 싹트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개발논리와 지배의식이 싹트다 보니 환경까지도 개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불안과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환경오염입니다. 공기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공기를 찾아서 돌아다니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공기 하나를 마신다 하더라도 내가 잘라서 내 코로 공

## “남보다 더 가져야 행복” | ‘나는 누구인가’ 돌아보고 잘못된 가치관 뿌리내려 | 생의 근본문제 해결 나서야

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 땅과 맑은 풀한 포기, 나무 한그루가 밤새 공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와 남이 아닌 세계관을 우리는 연가법, 중도법이라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여러분들은 나와 우수자언, 나와 남이 아닌 세계관을 반드시 설정해야만 인간들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이원론의 폐단을 지적한 아이슈타인 박사는 마음수행이 앞서가고 과학이 뒤를 따라야만 과학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지, 마음수행은 안하고 과학만 발달하면 과학은 핵무기가 되고 수류탄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서 인류를 멸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슈타인 박사는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내가 내 자신을 깨닫는, 내 마음의 발자리를 찾아가는 수행자가 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혜국(慧國) 스님은

- 6년 해인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범어사에서 혜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고 대승사, 봉암사, 칠불사 등에서 정진
-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 동안 생식하며 정좌불위(長坐不臥)
- 제주도 남곡선원에 무문관개설
- 69년 해인사에서 10번째 정진을 마친 뒤 오른손 세 손가락 연비
- 현재 조계종 선원장회의 의장, 총주석종사 금봉선원장

부처 아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래 면목이라고 이를 하는 것은, 보려고 딱 한 생각을 내어버리거나 찾으려고 하면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눈을 볼 수 있습니까? 눈을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그냥 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가지고 눈을 보려고 하면 이미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아무리 귀한 7대 8대 독자라도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밥을 먹여줄 수 없습니다. 먹여줘 봐야 아들은 배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합니다. "인 우수대자연의 이치를 표현해 깨달으시고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전부다 본래성불이라 부처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다만 눈에 가리라는 번뇌 망상에 의한 잘못된 착각 때문에 부처인 줄 모르는구나"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태양광명은 오늘날도 이 도량을 비추고 있지만 눈을 닫고 커튼을 쳐 버리면 빛이 들어올 수 없듯이 번뇌 망상이라는 커튼을 막 쳐서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벽만 착각이라는 것을 알고 꿈을 깨면,

상대를 나누고 남 잘되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고, 법문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이세요. 연속극 하나 줄인 그 시간에 청소기를 돌려만해도 '이 몸통이 끌고 다니는 이 참나가 무엇인고' 하고, 밥을 하면서도 '이 밥이 내 입에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던고. 그 분을 위해서 이 모르는 마음을 내야지'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은 편안해지고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범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가장 가정마다 세계관이 바뀌고 잘못된 세계관이 바로 정립되고 정경이 서게 됩니다. 정려=여수령 기차 · 사진=빅채원 기차

이렇게 되면 오늘 범회에 동참한 불자들이 가장 가정마다 세계관이 바뀌고 잘못된 세계관이 바로 정립되고 정경이 서게 됩니다.

정려=여수령 기차 · 사진=빅채원 기차

### 법회 전체 동영상중계 buddhanews.com

비디오·오디오 CD·테이프 구입은  
범어사 (051)508-3636  
현대불교신문 (02)732-1520

### 사찰 연등 및 전선(별양용) 불자기업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기업입니다.)

101 분리형  
102 일체형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불제대원 교수전구, 인지전구(정품)  
▶ 종류: 3W, 5W, 10W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필라멘트가 6배 (특 필라멘트)로 빛이 실등이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시찰용(1W, 2W, 3W), 반 영구적인 특수전구(정품)  
건전지용 초 병생, 탐침이 행사용 청사초종 및 초종 열이대

**연 등 (정 품)**  
범당등(관단등), 영기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구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

구입문의 (031) 986-0277 ~ 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 ~ 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 “불서보급 30년 전통” 동진기획

제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겠습니다.

<b>인문반야심경</b> • 경전사경 제1호 • 내지: 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접지제본 (220mm x 310mm)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b>안글반야심경</b> • 경전사경 제3호 • 내지: 100P 미색묘초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220mm x 310mm)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b>인문금강반야바라밀경</b> • 경전사경 제2호 • 내지: 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접지제본 (220mm x 310mm)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b>안글금강반야바라밀경</b> • 경전사경 제4호 • 내지: 100P 미색묘초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220mm x 310mm)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b>인문관세음보살보문품</b> • 경전사경 제5호 • 내지: 70P 자연색 메리트지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접지제본 (220mm x 310mm)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b>안글관세음보살보문품</b> • 경전사경 제6호 • 내지: 100P 미색묘초 •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 제본: 한장본 실제본 (220mm x 310mm) • 날권비닐포장 • 값 5,000원

인문 반야심경사경지    인문 보문품사경지  
 한지날장 (636mm x 313mm) 값 400원    한지(3장 1조) (636mm x 313mm) 값 1,200원

안글무상계사경지  
 한지날장 (636mm x 313mm) 값 400원

붓펜(사경펜)  
 • 제브라붓펜 1호 (모필-세자) 값 7,500원  
 • 제브라붓펜 2호 (모필-중자) 값 7,500원  
 • 리필용 카트리지 (1.2호리필용) 값 2,500원  
 • 제브라붓펜 3호 (경필-세자) 값 2,000원  
 • 제브라붓펜 4호 (경필-세자) 값 1,800원  
 • 제브라붓펜 5호 (경필-중자) 값 1,800원

Since 1975 동진기획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 (051) 515-8888(대)  
 FAX : (051) 508-0101  
 H · P : 011-554-2988

■ 불교서적 ■ 불교카렌다 ■ 주문카렌다 ■  
 ■ 불교용품 ■ 연 등 ■ 사찰인쇄전문 ■  
 E-mail : 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묻습니다

사회: 화랑 스님(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질의 법사·설우 스님
· 해인사 불국사, 법어사 등에서 25년간 성만
· 현재 조계종 승가교서 위원
· 조계종 승가교육개선 추진위원회 위원
· 법인정사선원장

설우 스님: 천년이 넘도록 간화선이 선종의 정통 수행법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사선 정신을 바탕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사선과 간화선은 비록 그 이름은 다르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한 구도를 지니고 있는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학자들 중 조사선과 간화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견해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간화선과 조사선 수행의 동일성에 대해, 그리고 조사선과 간화선이 주장하는 본래성불의 본질에 대해서 명쾌한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해국 스님: 우리가 흔히 조계종에서 말하는 선은 조사선과 간화선입니다. 그렇다면 뭘 조사라 하나요? 수심 대를 전해내려 와서 도를 깨쳐서 부처와 같이 된 분들을 조사라 하고 그 분들이 참선을 통해 깨달은 것을 조사선이라 합니다. 달정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무(無)"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깨쳐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깨치는 것을 우리는 조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후대로 오면서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조사들의 말만 흉내를 내며만 말합니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내서 분명히 깨달았는지 인정을 해주자는 것이지요. '무'라는 관문을 세워, 그것을 화두라고 해요. 글자 자체가 화두가 아니고 그 '무'라고 한 소식 자체가 화두란 말이예요. 말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 것을 화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사선과 간화선은 조금도 차이가 없고 꼭 같은 방법이고 체제가 같아요. 둘은 깨

내가 없어져 진리 그 자체 될때 '화두삼매'

답는 방법이나 깨닫는 목적이나 수행하는 방법이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설우 스님: 흔히 독서삼매나 영화삼매나 해서 눈앞의 경계와 하나가 될 때를 삼매(三昧)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삼매와 간화선에서 강조하는 궁극적인 삼매와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국 스님: 삼매란 말을 많이 써보셨지요? 간화선의 삼매는 일반적인 삼매와는 차원부터 다릅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삼매는 대상을 놓고 오히려 주관이 대상에 빠진 것을 삼매라고 하는데, 그것은 간화선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삼매가 아니고 이름이 그저 삼매일 뿐입니다. 간화선에서 말하는 삼매는 내가 없어져 버려서 진리 자체가 되어 버린 상태를 화두삼매라 한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설우 스님: 간화선 수행을 하는 후학과 재가자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 정견을 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해국 스님: 그 나라의 운명과 종교의 운명은 같은 길을 걷게 돼 있습니다. 중국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할 정도로 탄압을 받아 이제 거의 유명무실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반대로, 일부 일제종교인가 조동종인가를 빼놓고는 화두를 수학공식 풀듯이 하나 풀고 나서 또 하나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화선맥이 너무나 잘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데'가 야 인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화두 참선법은 세계 석학들

이 가장 부러워할 수행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길을 앞서가는 분들이 될 것입니다.
김건웅 거사 부처님께서 깨치신 내용 중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다는 연기법과 시공의 초월하는 절대 자린 접나와는 그 뜻이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대성을 말씀하시는 연기법의 세계와 절대적 당처를 말씀하시는



꽃샘 추위도 불자들의 구도열기를 꺾을 수 없었다. 3월 12일 법어사에서 열린 설선대법회에는 지난 입제법회보다 1000여 명이 많은 4000여명의 불자들이 모였습니다.

조사님의 깨치신 내용과는 어찌 보면 상호보완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바르며 아는 것인지 깨우쳐 주십시오.
해국 스님: "연기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법을 본다"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 세계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만약 세계를 드라이버로 다 풀어 놓으면 그게 세계입니까, 고행명어입니까? 고행명어이죠. 그럼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판과 이 기계가 서로 들고 끌려서 인연을 만들었을 때만 세계라는 세계가 창조됐

신심 확고하게 서야 의심과 분심 일어나

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리에 있도록 하는 시간과 공간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변해가는 과정이고 모양이 있을 때만, 서로 의지해 있는 동안만 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변해나가는 과정, 즉 무아로서의 해국이고 무아로서의 시계에 그 때문에 그 움직여나가는 무아의

행과 거리가 먼 일상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스님의 참다운 모습입니까?
해국 스님: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내가 출중하지 못해서 수행과 삶을 결별하지 못해서 그렇지, 수행하는 삶 자체가 포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단 한 가지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포교라고 하는 것이 꼭 말로 해야 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저 멀어서 수행하는 삶을 보면서 참다운 신심을 내는 것도 포교요 수행하는 삶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면서 나도 한번 수행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왜 포교가 아니냐 말이지요.
저도 삶과 수행이 하나가 된 삶을 살고 싶다는 원을 세웁니다. 지금 수행과 삶이 이분(二分)되어 보이는 것은 수행자들이 고쳐야 할 숙제입니다. 포교만 하는 분들도 반드시 수행을 곁들여서 삶과 수행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김건웅 거사: <선가귀감>에 이

원리를 깨닫는 것을 바로 중도라고 합니다. 고로 어떤 업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가는지를 봐야하고, 무아로서의 연기법을 바로 보면 조사님들이 보라고 한 바로 그 자리가 보일 것입니다. 연기법은 중도요 중도는 바로 부처님이 말한 화두라고 정리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김건웅 거사: 수행과 포교는 둘이 아니라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행하는 스님은 수행에만 전념하시는 것 같고 포교의 입선에 계시는 스님께서는 수

르기를 참선자가 갖춰야 할 세 가지 기묘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대신심(大信心), 둘째는 대분심(大放心), 셋째는 대의정(大疑情)인데, 이 가운데 신심은 있으나 분심이나 의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공부룰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해국 스님: 제 자신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십시오.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면, 내가 부처라는 것을 알고 하는 수행과 내가



재가 집의사: 김건웅 거사
· 부산대 공학과 졸업, 경영학석사 수료
· 통도사 부사포교원 국제포교부장역임
· 조계종 포교대상 권력상 수상
· 현재 해인살업대표 · 한·네트워크재단 상임이사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수행과의 차이를 알아야 그 신(信)은 확립이 됩니다. 내가 이미 부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만 뜨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만 확실하 서면, "그럼 왜 나는 부처가 안 된다 말인가?"하는 분심(放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나는 부처다" 하고 나서서, 연속극이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있으니 분심이 날 수가 있나요. 신이 딱 서면 의심과 분심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있어요.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선 것은 익게 하라. 텔레비전 보고, 남하고 싸움하고 하는 것은 꼭 익었으니 그런 설도록 하고 앉아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참구하는 것은 설기 때문에 꼭 익게 해야 합니다. 선 것을 익게 하는 것은 노력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선을 부업으로 생각하지 말고 단 5분, 단 1시간을 하더라도 그 시간 만큼은 전업으로 하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분통이 터지고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울고불고 하는 시간이 늘다 보면 의심이나 분심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신심과 분심과 의심을 하나로 봐서 확실히 대오한다면 언젠가 부처님 영산회상에서 만나서 "너희들 모두가 부처라는 그 한마디 듣고 깨달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쉬고 계십니다. 저희가 제도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부처님 무엇을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부처님을 위해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경지까지 올라가 보자 이 말입니다.
정리= 여수영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법치 이모저모
질의응답 사회, 화랑 스님이 말아
○...지난 입제 법회 때 조계종 기본선원장 지원 스님이 '질의응답' 사회를 맡았는데 이어 이번 법회부터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화랑 스님(사진)이 법회 사회를 맡았다. 화랑 스님은 앞으로 8번에 걸친 법회의 사회를 맡는 한편 3월 19일 열릴 세 번째 법회에서는 고우 스님 법문에 대한 질의법사로도 나선다.
4000여명 도량 가득 메워
○...이날 법회는 영하 6~7도의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3월 5일 열린 입제법회 때보다 1000여 명이 더 많은 40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 시작 3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보채루는 발 디딤 틈 없이 불자들이 가득 차었다. 법회 후 이어진 참선실수도 보채루와 설법전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해국 스님의 참가자 위한 축원
○...해국 스님은 법회마다 참가 대중을 위한 축원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법회에서도 스님은 "오늘 모인 대중들이 잠깐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와 잘못 생각해 욕망을 따라 다니느라 생사윤회를 하옵는 바, 이제 설선대법회에서 보리심을 발하여 세계생생 날 적마다 발심출가하고 정견을 확립해 선지식을 전진하고 필경 성불하여 지이다"고 축원했다.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시 중(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2. 세계 유일의 음양조율기술 보유 업체
3. 세계 유일의 범종 절자리기술 보유 업체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중국 오대산, 운강석굴 순례
문수보살의 도량 오대산과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중국 최고의 목판인 응현목탑 등을 전세기편으로 가장 편리하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저 관게로 60분만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세기 특별가 4박 5일 69만원
● 출발일 : 4월 30일 ~ 5월 4일 (4박 5일)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제 1일 4/30(목) 인 천 현
제 2일 5/1(금) 태 원 오대산
제 3일 5/2(토) 오대산
제 4일 5/3(일) 오대산
제 5일 5/4(수) 대 동 인 천 현
항공 22:50~23:50 인천공항 집결 / 중국 수속 후 인천공항 출발, 중국의 태원 도착 후 호넬로 이동
호텔수속 / 조식 후 오대산으로 이동, 도중에 불광사, 불광삼정미 견학한 금각사, 정일암 일주루이 있는 용현사 참례
자랑할사가 문수보살을 친견한 중대 동경, 현전고굴 현종사, 보살경, 탑원사,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조성한 수암사, 오대문수보살을 모신 대량경 등 참례
오대산 출발 중국 영국의 응현목탑, 현종사 순례 후 대동 도착,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인 운강석굴 순례 후 호넬 투숙
대동출발 / 태원 도착 후 고석 참연한 천수현안 관세음보살을 모신 승선사, 진사 등 순례 후 태원 출발 / 인천 도착
■ 구비서류 - 여권만 제출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분은 연장해야 합니다)
■ 여권 없는 분은 여권용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통, 인지도 5만원